

‘녹차산업의 메카’ 전남 1위 자리 경남에 내줬다

2007년 61%→2014년 40%
전국 생산 비중 7년 새 ‘뚝’
커피에 밀려 수요 크게 줄어
유기농·고급화로 차별화 전략

■ 녹차 생산량·재배 농가 비교

전남	생산량	재배농가	경남	생산량	재배농가
2007년	2354톤(60.5%)	2905가구	541톤(13.9%)	2396가구	
2010년	2291톤(63.9%)	2367가구	648톤(18.1%)	2237가구	
2014년	1568톤(40.1%)	1668가구	1961톤(52.2%)	2045가구	

※ ()안은 전국대비 비중

국내 녹차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온 전남이 재배농가와 생산량 감소로 그 자리를 경남에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남지역의 녹차 재배 농가는 2905가구에 생산량은 2354톤이었다. 당시 전국 녹차 생산 농가가 5512가구에 생산량이 3888톤이었음을 감안하면 전국 재배 농가 기준 52.7%, 생산량 기준 60.5%를 차지하는 규모다. 당시 경남의 녹차 재배농가는 2395가구(전국의 43.5%)에 생산량은 541톤(전국의 13.9%)에 불과했다.

하지만, 3년 후인 2010년에는 전남의 녹차 재배 농가가 2367가구로 감소했고, 생산량도 2291톤으로 줄었다. 전국 생산 농가 4765가구 대비 비중은 49.7%

였고, 생산량은 전국 3586톤의 63.9%로 재배 농가 비중은 줄어든 반면 생산 비중은 소폭 늘었다. 반면 경남은 생산 농가는 2237가구(전국의 46.9%)로 줄었음에도 생산량은 648톤(전국의 18.1%)으로 크게 늘었다.

이어 4년 후인 2014년에는 전남의 녹차 생산 농가는 1668가구, 생산량은 1568톤으로 대폭 감소했다. 전국 비중도 생산 농가 3820가구의 43.7%, 생산량 3915톤의 40.1%로 크게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경남의 녹차 재배농가는 2045가구에 생산량은 1961톤으로, 전국 비중이 생산 농가 51.3%, 생산량 52.2%로 상승하면서 전남을 제치고 녹차의 메카로 부상했다. 이처럼 전남 녹차 생산농가와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최근 커피 소비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녹차 시장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남지역 대표적 녹차 주산지인 보성군은 녹차 수요가 줄면서 유기농과 고급화 등을 통한 차별화 전략에 나서면서 농가와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명기 보성군 녹차사업소장은 “3000억원대의 녹차 시장이 최근 1000억원대로 크게 위축되면서 생산 농가와 생산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신, 전남을 대표하는 보성 녹차는 국내·외 유기농 인증, 군수 품질인증 등의 고급화 전략에 나서면서 생산량보다 품질의 질을 더 따지다 보니 실질적인 생산면적이나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 SOC 사업비 비율, 참여정부 14.6%→박근혜 정부 4.4%

지자체 행정 보조금 지원액
영남권 5년간 51조1792억
호남권보다 21조원 더 많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호남권 인사·예산 소외에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수도권·영남권에 비해 소외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현황’에 따르면 호남권의 도로·철도 등 SOC사업 사업비 비율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전국의 14.6%에서 박근혜 정부에 와서 4.4%로 무려 12.2%포인트나 감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수도권 SOC 사업비 비율은 62.3%였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72.5%로 10.2%포인트나 증가했다.

전국에 걸쳐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유지 보수사업인 ‘지방하천 총액계상 사업’에서는 영남권이 2011년 30.2%에서 2015년 31.7%로 1.5%포인트 예산 비율이 증가했지만, 강원권 1.1%포인트·호남권 1.0%포인트·제주권 2.6%포인트씩 감소했다.

영남권과 호남권의 지방하천 총액계상 지원액의 격차는 2011년 301억원에서 박근혜 정부 취임 첫해인 2013년 675억원까지 벌어졌다.

영·호남권의 격차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액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이후 최근 5년간 영남권 보조금 지원액은 51조1792억원으로, 호남권 29조4943억원보다 21조원가량 더 많았다.

최 의원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은 500억 원 이상 토목 등 대규모 건축사업으로 지역발전 큰 몫을 차지하는 사업들로 사업비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SOC 사업에서 호남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특정 지역 편중은 지역소외를 고착화해 장기적으로 국가 미래동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취업박람회장의 구직자들 26일 광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장 구직자들이 희망하는 업체의 면접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12개 직접 참여업체가 총 130여명을 선발하는 박람회에는 500여명의 구직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새누리 보이콧... ‘반쪽 국감’

‘김재수 해임안’ 반발 불참·이정현 대표 무기한 단식에 곳곳 파행

야권도 “물러서지 않겠다”

26일 막을 올린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당의 불참으로 ‘반쪽 국감’이 현실화됐다. <관련기사 3·4면>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아예 열리지 못하거나 파행 운영됐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이 사퇴권을 전 법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국방·안전행정부·정무위는 국감을 위한 전체회의를 아예 개의하지 못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외교·통일·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

양수산·산업통상자원·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친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지만, 정 의장은 이 같은 요구를 일축하고 있어 국감 초반 당분간 파행 운영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형사 고발을 검토하는 한편, 정 의장이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서 세월호와 어버이연합 등을 언급하며 “맨입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한 농취록까지 공개하는 등 파상 공세를 퍼부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물러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회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저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했다”며 “거야(巨野)의 황포에 맞서기 위해선 비상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농취론 논란과 관련, “여야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길 바랐던 것뿐”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이와 함께 그는 국감 파행과 관련, 국감 일정을 2~3일 늦추자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제안했지만, 더민주가 난색을 보이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야권의 현재 기류는 이번 ‘해임안 정국’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흐름이어서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한 국감 파행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알고도 못먹는 부동산 보이콧 ▶6면

남도다사 1번지 강진 감성 여행 ▶11면

KIA-LG 오늘 광주서 4위 혈투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Handcrafted by Racers.

The new Mercedes-AMG GT.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Mercedes-AMG GT S Edition 1 (3,982cc 1,665kg, 자동7단), 복합연비 7.3km/ℓ (도시연비: 6.5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40g/km
※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